

지역 소식 통

장은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장은아 부안군의원 가선거구(부안읍·행안면) 예비후보가 7일 국민은행 4층(부안읍 석정로 224번지)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당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예비후보의 출마를 축하하며 성원을 이뤘다.

장은아 예비후보는 부안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주요 공약으로 △△RE100 국가산단 부안 유치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령사업 추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어르신 일자리 및 복지 확대 △70세 이상 이·미용 지원 등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 포함됐다.

장은아 예비후보는 "군민의 불편이 있는 곳이라면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며 "행동은 끝까지 지는 자세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군의원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의료·요양 통합 돌봄사업' 현장점검 추진

정읍시가 지난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일선 창구인 관내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밀착 현장 점검과 지원에 나섰다.

이에 시 노인장애인과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5일간 관내 23개 읍·면·동을 차례로 돌며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통합 돌봄 업무 분장 현황, 신청·지원 계획 수립 상황, 사업 홍보 등 전반적 준비 실태다. 일선 현장 직원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에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의 지역자원 활용 여행 '눈길'

5월 가정의 달 맞아... 역사·체험·숙박 결합한 체류형 관광 추진 가족 단위 1박 2일 '시티스테이 올래' 참가자 모집... 10일까지 접수

정읍시와 정읍시지역활력센터가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외 거주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 2일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인 '정읍 시티스테이 올래' 참가자 30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정읍 시티스테이 올래'는 하루 방문으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정읍 도심에 직접 머물며 지역의 일상과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특화 자원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만 7세 이상 관외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안성맞춤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주말을 활용해 진행된다. 1일 차에는 정읍역에 집결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을 시작으로 내장산 기적의 놀이터 순환열차와 1894년 하루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후 원도심 여행을 통해 개화기 의상 입어 보기와 생화차 체험을 즐기고, 저녁에는 기억저장소에서 도심 속 감성 잔치(파티)로 하루를 낭만적으로 마무리한다.

숙박은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형 숙박시설(메이플 게스트하우스, 기억저장소, 단풍게스트하우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2일 차에는 용산호 미르샘을 찾은 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정읍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살펴보고, 떡어울림플랫폼에서 전통 떡 만들기 체험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참가 신청은 누리소통망(SNS) 및 온라인 소통 창구(채널)를 통해 사전 접수한다. 향후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생생한 후기는 정읍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널리 소개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군수 권한대행 체제 본격 가동

김영식 권한대행, 행정공백 최소화 등 6대 과제 제시... "흔들림 없는 군정 운영"

고창군이 심덕섭 고창군수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7일부터 김영식 부군수·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흔들림 없는 군정 운영에 나선다.

김영식 권한대행은 전환 첫날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주민 불편과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6대 중점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 공백 방지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불법 현수막 관리 등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 △중동사태 대응 및 지역경제 상황 관리 △중장·도 추경 대비 사전 준비 철저



김영식 부군수

△재정 신속 집행 적극 추진 △주민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김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필수적인 의무임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활동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 등 대외 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고, 민생경제에 탄력이 없도록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실천과 재정 신속 집행, 추경 대비의 중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민원·복지·교통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보리밭 축제 등 인파 밀집 행사 안전관리와 봄철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3자녀 이상 가구에 패밀리카 최대 500만원 지원

20가구 선정·다자녀 가구 이동 편의 개선·양육 부담 완화 기대... 21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내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가족용 차량(패밀리카)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단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2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다. 이들이 6~11인승 신규 가족용 차량(패밀리카)을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 심사와 배점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6세 미만 자녀 수, 막내 자녀 연령, 18세 이하 자녀 수, 차량 보유 현황, 시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5인승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거나 출고 후 7년이 넘는 6~11인승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차량을 매도하는 조건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7년 이내의 가족용 차량(패밀리카)을 이미 보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가구는 2년간 도내에 거주하며 지원받은 차량을 의무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 조치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1일까지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087)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에서 군부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신장률, 징수실적, 연구과제, 세무조사 등 23개 평가항목 대해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번 수상으로 군 세정분야의 우수한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은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와 전북자치도 대표로 전국 연구과제를 발표해 수상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군은 2023년에도 대상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군 세정분야의 우수한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교육장, 학교 현장 방문·소통 행정

학교장 인사발령 9개교 대상 찾아... 주요 사업 현황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이 7일부터 13일까지 올해 3월 1일자 학교장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을 찾아 소통 중심 행정에 나섰다.

이번 학교 방문은 학교 교육활동 관련 민원 청취 및 지역 사회 교육 현안을 파악하며, 10대 핵심과제 등 주요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지원

청과 협업해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현장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지원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한숙경 교육장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바탕으로 맞춤형 현장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공유재산심의회 신규 위원 위촉

각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 투명·효율적 재산 관리 박차

정읍시가 7일 시청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제2회 심의회를 열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 위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졌다. 특히 민간 위원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지방재정과 부동산, 건축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엄선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이달부터 오는 2028년 4월까지 2년이다. 이들은 앞으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수립과 변경,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용도 변경 및 폐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된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2026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행정재산 용도 폐지, 일반재산 용도 변경, '정읍 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및 처분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